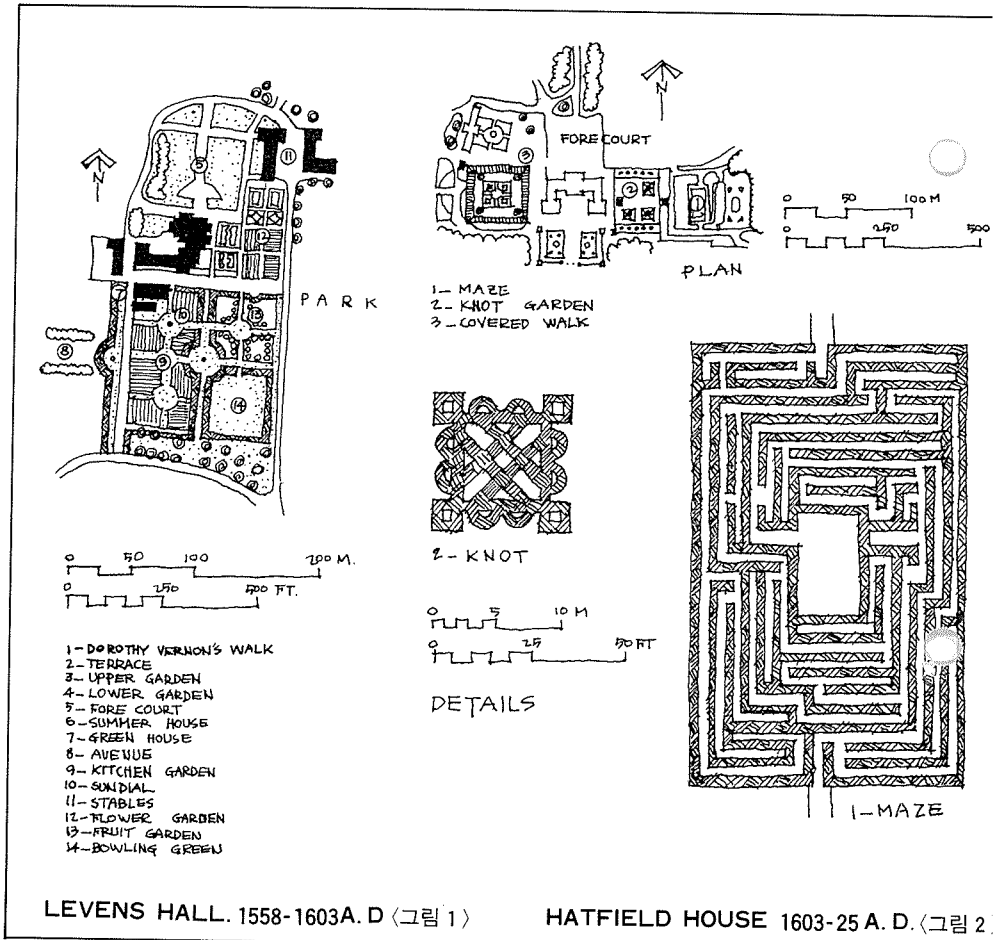


건축과 조경 ② 서양의 조경



LEVENS HALL. 1558-1603A. D <그림 1>

HATFIELD HOUSE 1603-25 A. D.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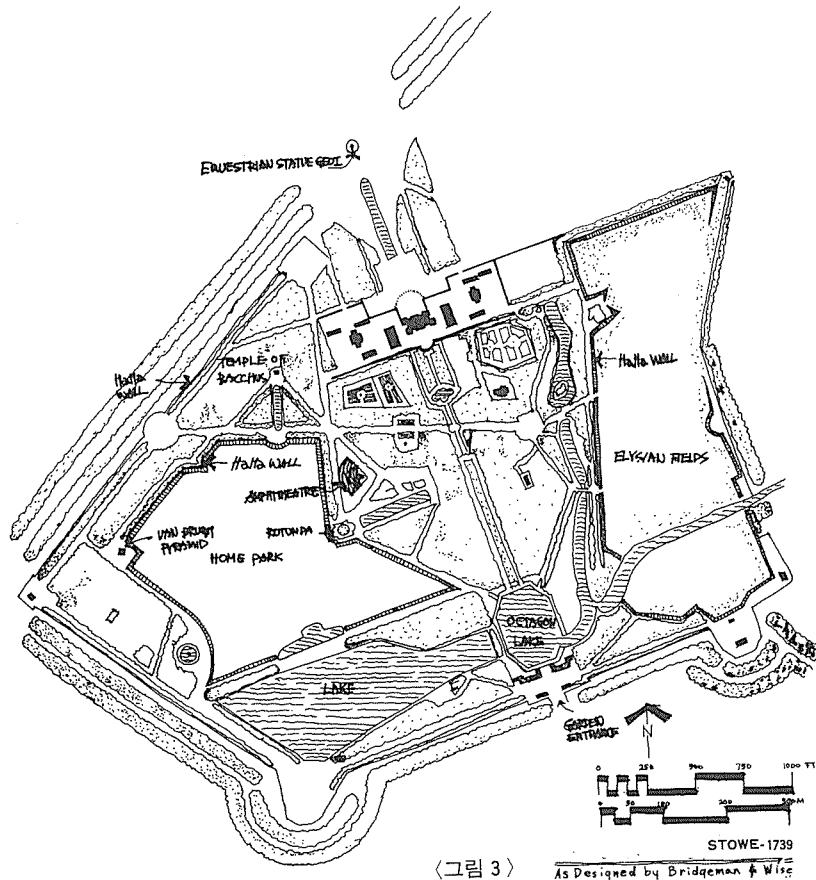
TREATISE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 Pyung

④ 영국 풍경식(風景式) 낭만주의 조경
 <문화와 예술은 연속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절대로 좌절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새로운 상황하에서도 그 맥락은 면면히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시대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다시 재창조되어 새로운
 풍조가 자연스럽게 등장되는 것이다.....>
 16세기초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13세기초에 발생되었던 자유주의 사상적
 (Magna Charta 1215년 영국왕 John이
 승리한국민자유 의 칙허장) 전통을 계승
 하고 있었는데 로마교황권을 부정하는 절대
 군주정체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 것은 1530년 경이었다.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들은 전원지대(田園
 地帶)에 보유한 자기의 영지에서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생활하는 자유를 추구
 하였으며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상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의
 지배하에 있던 세속군주도 그 지배를
 벗어나 독자의 권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때에 국가를 초월한 개인에 의한
 새로운 사상적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Nicolaus 1473
 ~ 1543), 케플러(Kepler, Johannes 1571~
 1630), 갈릴레이(Galilei, Galileo 1564~

1642), 뉴턴(Newton, Sir Issac 1643~
 1727)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럽제국의
 과학자들이 이 당시 까지만해도 종교적
 사상으로 인한 절대신성의 성역이었던 신에
 도전하여 우주의 구조에 대한 해명을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근대철학의 창시자로서 과학적 경험론을
 중요시했던 독일 철학자 데카르트
 (Descartes, Rene 1596~ 1650)가 「나는
 사유(思惟)한다, 고로 나는 존재(存在)
 한다」고 설파한 것도 이 시기였다. 개인은
 타인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실존(實存)과
 경험에 입각하여 추론(推論)한다는 명제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신앙의 자유(自由)를 왕권
 (王權)과의 대립을 전제로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만인평등을 인정하고
 중간계급과 재산권의 보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다.
 시대적으로 요구된 이러한 과학적 자유주의
 (自然·自由主義)를 배경으로 싹튼 것이
 영국 자연풍경식 조경양식(自然風景式
 造景樣式)의 역사적 배경이라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건축풍조(建築風潮)를 개관
 한다면 유럽대륙으로부터 흘러 들어왔던
 기하학적으로 정형된 것에 맞선 건축이



(그림 3)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체적인 통일의 유지와 균제의 미를 살리는 가운데 궁궐이나 장원과 같은 형태를 떠난 규모가 꽤 큰 밀집된 도시형 건축물이 나타났으며 교회의 종탑 등으로 강조(Accent)된 치밀한 벽돌조의 실용적인 것과 기념비적인(monumental) 것의 절충식 건축이 정착되어 있었다.

예컨대 1632년에 건설된 Hampton Court 궁원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 Greenwich The Royall Naval College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건축의 목적과 부지 및 자연환경에 걸맞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景觀)의 구성 역시, 대륙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구성의 양식(pattern)에 영국인 특유의 기질을 잘 반영한 건축과 마찬가지로 절충식의 형태를 반영함으로써 초기에는 거대한 직선적인 설계(lay out)가 가로(街路)에 도입되었으나 공유자 상호간에 거센 반발을 일으켜 차츰 완만한 기복을 가진 영국 지형에 알맞는 목가적 분위기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470년에 축조된 Haddon Hall, 1547~53년에 건설된 Montacute Hall, 1958~1603년에 건설된 Levens Hall에서처럼 전정

(前庭: fore court)에는 자갈 깔린 마당 보다는 잔디 또는 녹색의 소관목을 심었으며 저택(castle)안의 적당한 곳에 테라스(terrace)를 설치한 것을 보아도 이탈리아의 장방형보다는 정방형인 경향으로 조성되어 있어 영국적인 강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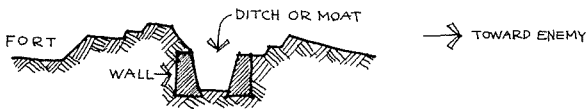
(그림 1. 2)

이와같은 흐름중에서도 영국풍경식(英國風景式) 조경의 진화과정이 가장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는 건축가인 반 브로우(Van Brough)와 조경가인 브리지만(Bridgeman)에 의하여 18세기초에 건설된 스토우(Stowe)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3) 대륙적인 영향으로 정형식(定形式)이기는 하지만 얼른 보기에는 베르사이유(Versailles)에서처럼 중앙의 축을 중심으로 남쪽 경사를 따라 8각형의 연못까지 똑바로 이어져있고, 촘촘한 간격으로 나무들이 있는 두개의 가로수 길이 버킹검으로 향해 경사져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파테어(parterres: 정원에 화단을 배치한 구역)들이 수영장과 분수와 수로(canals)와 숲이 있는 곳에 마련되어 있어 대륙의 정형식 정원(formal gardens)과 동일시 할 수 있으나, 좀 면밀히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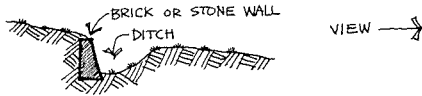
영국적인 뚜렷한 개성과 혁신적인 처리 기법을 볼 수 있다.

첫째, 브리지만은 은장(隱牆: 정원의 경계로서 개천을 파고 그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숨은 담장인데 이와같은 것을 ha-ha wall이라고 하였음:그림 4)을 도입하였다. 이와같은 ha-ha wall은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모우트(moat: 도시나 성곽둘레의 外濠)를 정원 축조 기법에 도입시킨 것으로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폐쇄적인 돌출담장을 피하고 부지 외부의 자연경관을 부지내의 경관과 연장 시킴으로써 차경관의 확대효과를 기하였던 것이다.

둘째, 교차되는 축선의 각도에서 기존 마을에 있었던 도로망의 축선을 근본적으로 직각이 되도록 교차시키지 않고 서로 빛나가게 교차시킴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고 옛토지의 지배자였던 코브라함 군주가 사용하였던 교회 등 초기 스토우(Stowe) 마을의 집들은 존치케하여 지배자가 떠났더라도 옛 로마의 도로에 이르는 길들이 그대로 존속케하였다. 셋째, 위 두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지형 자체가 기복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A. FORTIFICATION



B. HA-HA IN TRAN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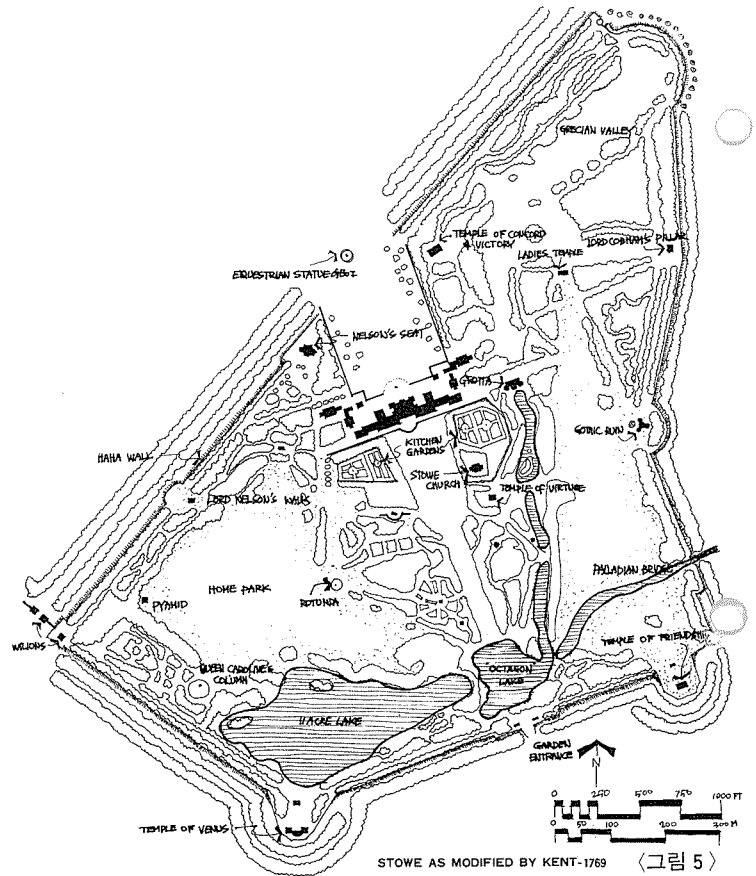
C. FORMS IN OCCASIONAL USE



D. FORM IN TYPICAL USE

EVOLUTION OF THE HA-HA (NO SCALE)

〈그림 4〉



STOWE AS MODIFIED BY KENT-1769 〈그림 5〉

자연지형을 대부분 그대로 살려 무리한 절토와 성토를 자제하였음을 볼 수 있다. 1733년 브리지만의 활동기가 서서히 지나갈 무렵, 당시 화가와 조각가로 활동했으나 크게 빛을 못보고 오히려 건축과 조경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어 브리지만과 쌍벽을 이루었던 윌리엄 켄트(William Kent)가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2세기에 걸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이태리의 르네상스 별장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돌아왔다. 윌리엄 켄트는 조사를 통해 별장의 각 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전체적으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보았으며 이런 현상은 윌리엄 켄트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뇌리속에 박히게 되었다. 초기의 켄트는 브리지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후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가 주로 심취하였던 황폐된 이태리 정원의 영향을 받아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들과 정원과 부지위에 구축된 구성물 전체에서 고전적 정형미의 균형을 거부하는 새로운 조형미가 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입지의 작품과는 정반대로 켄트는 평면(平面)이나 선(線)을 사용하지 않고 작품을 만든다고 보고 있었으며 그가 개량한 스토우정원(Stowe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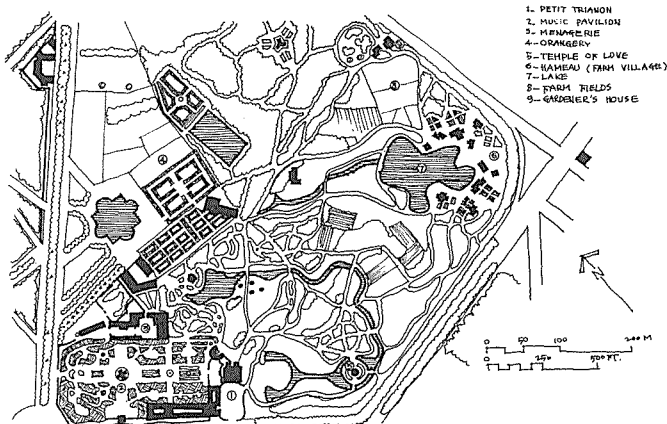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전적, 정형적인 형태를 거부함으로써 고전적 요소가 무너진 형태로 매우 자연스럽게 변천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켄트의 영향을 받은 그의 후계자 란셀로트 브라운(Lancelot Brown)은 한술 더떠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켄트의 절충식(정형의 거부에 의한 자연형으로의 복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연주의를 탐미함으로써 정형식(定形式)의 고전미가 완전히 사라지게됨과 동시에 급진적인 고전 개량주의로의 이신(異身)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의 르네상스식 고전적 형태의 멋진 역사 유물들이 일시적이거나 무비판적으로 파괴되고 개량되어 뜻있는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 하나의 예가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스토우 정원(Stowe garden)의 2차 개량이다. 이처럼 근대영국의 풍경식 조경양식(風景式 造景樣式)은 켄트에 의하여 창시되고 브라운에 의하여 완숙되었는데 이 때의 켄트의 작품을 보면 거대하고 용장(勇狀)하며, 기복이 있는 강처럼 보이는 수면만 있으면 어디서나 그와같은 수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역력하였다.

켄트가 처음 시작한 것은 수목(樹木)이 군집(群集)을 이루게 되도록, 즉 작은 숲이 되도록 나무를 식재 하는 방법이었다 건축물은 햇빛과 구름이 비치는 웅대한 목가적 경관속에 자리잡게 하였으며 ha-ha wall 속에 갇힌 사슴들이 자연스럽게 한가히 떼지어 노는 시적인 풍경을 연출하였다. 여기에 브라운은 목가적이고 시적인 사상을 넘어 영국의 부드러운 토지 형태에서 아이디어의 커다란 영향을 받아 자연의 곡선만을 유일한 조경기법(造景技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성된 영국의 자연풍경식 조경양식을 이어받은 험프리 렉튼(Humphrey Repton: 1752~1818)은 브라운의 인간미를 가미한 기법 즉, 완전히 개방된 순수 자연적인(다소 비인간적인) 것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인공과 자연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기법을 구사하였다. 그리하여 험프리 렉튼 시대에 정립된 영국의 자연풍경식 조경양식에서는 현대 조경에서도 가장 존중되는 자연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자연과 인간화합이 주조를 이루게 되었다. 험프리 렉튼의 특색은 정성들여 작성된 보고서와, 심리적이고 시각적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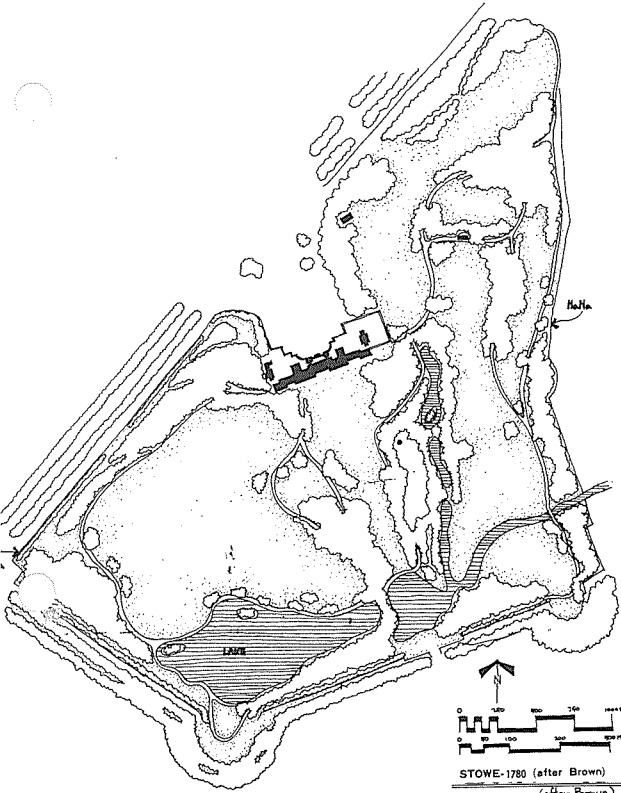


〈그림 7〉 REPTON에 의해 고안된 슬라이드

위 : 개량후의 경관
아래 : 개량전의 원형



〈그림 8〉 PETIT TRIANON, VERSAILLES. 1775 A. D.



〈그림 6〉

분석적으로 제작된 설계도서, 계획의 사전, 사후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풍경도를 종합한 「Red Book」이라는 방법을 창안해 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요즈음의 시행전 사진과 시행후의 투시도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림 7) 이러한 일련의 영국풍경식 조경 양식은 고전적 기하학적 형태에 실증을 느낀 사회 심리적 현상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안뜨와네뜨(Marie Antoinette) 같은 이는 뽀띠트리아농(Petie Trianon) 부근에 르 가르탱 앙글레스 하모(Le Gardin Anglais Hameau : 촌락)를 조성하여 정원의 깊숙한 골짜기에 소용돌이 치는 냇물이 흐르게 하고 연못이 있게하고 연못 제방에는 제분공장과 낙농저장고와 마차의 장신구들이 있는 농가를 배치하여 마리 안뜨와네뜨 자신이 시녀들과 농부놀이를 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림 8) 이태리에서도 18세기 후반 보르게제(Borgeze)가 영국인을 고용하여 뽀르 따 델 포플러(Por ta del Popolo)주 외곽에 있는 빌라 보르게제(Villa Borghese)의 한 부분을 황폐된 사원으로 장식하고 이어서 모가르트(Mogarth)의 미의 선이 흐르는 숲을 통과하게 하여 오솔길과

전설적인 그리스 아스클라피어스(Asclepius) 신전 다이아나(Diana) 신전으로 이끄는 조망을 갖춘 켄트와 브라운과 렘튼의 정원을 이곳에 만들었다. 대륙에서의 문예부흥은 영국에서의 산업 혁명으로 이어지고 이와 함께 국력이 강대해진 영국의 조경문화는 유럽대륙과 북아메리카 및 그들의 식민지가 있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장기에 이르렀다. ⑤ 현대 미국조경의 아버지 프레데릭 로우 올름스테드(Fredrik Law Olmsted) 16세기 중엽 이후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등 일단의 과학자에 의하여 우주와 지구의 현상을 해명함에 있어 과학적 법칙에 의거한 논증 방법이 시발을 하였으며 유럽제국들간에는 미지의 세계로 향한 탐험의 향배가 맹렬히 일기시작하였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은 새로 발견되는 신대륙에 그들의 국민을 이주시켜 본국 영토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영국은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비하여 다소 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 들었으나 산업 혁명으로 점증하는 공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의 필요성과 공업회에 의한 국력의 급성장, 막강한 해군력 등에 힘입어 식민지를 확장해 나간 결과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와 북미지역, 대양주, 아프리카 등 그들의 발길이 5대양 6대주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서는 스페인이 카리브해 연안을 차지하여 남미와 북미의 남부지역에 그들의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그들이 차지한 지역명을 베라크루즈(Vera Cruz) 세인트 어거스틴(St. Augustine), 산타페(Santa Fe) 등으로 붙였고 동북부 캐나다 지역을 차지한 프랑스는 몬트레올(Montreal) 등으로, 중동부 지역을 거점으로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본국 왕이나 그들 고국 고유의 이름을 붙여 제임스 타운(James Town), 버지니아(Virginia), 사우드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뉴잉글랜드(New England) 등으로 지명을 붙였다. 이와같이 북미의 동부지역에 터를 잡은 영국인들은 강력한 국력의 뒷받침으로 처음에는 신대륙을 찾는 이민의 수가 적었으나 나중에는 끊임없이 몰려들어와 신대륙에서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청교도적인 검소함과 고국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강한 개혁정신을 가진 이들 영국 이민 1세대들은 북아메리카의 중심 지역에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었고 함께 신대륙에 상륙했던 스페인과 프랑스 등 타국의 국력이 기울기 시작하는 기회를 이용, 북미지역 식민지 건설에 기선을 잡게되었다.

초기 동부를 중심으로 정착했던 이들 이주민들은 본국과 종속의 유대를 이루면서 고국의 생활과 풍속과 건축양식 등을 정착지에 이식했다. 그러나 이민 2세대 3세대로 점차 바뀌면서 유럽 여러나라로부터 이주해온 타민족 끼리와 융화가 이루어지고 서부 개척 시대의 특이한 역사적 과정이 이에 겹쳐 서서히 본국으로부터의 탈출의 의지가 싹트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독립의지가 팽대해져 1776년 독립전쟁이 벌어졌고, 1787년 동서부의 13개 주로 구성된 연방 정부의 헌법이 제정 됨으로써 명실공히 합법적인 독립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의 건축양식은 르네상스기의 영국 양식과 네덜란드 양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18세기 전통을 충실히 지켜 우아함을 유지 하였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은 프랑스식 고전주의와 영국식 자연풍경식 사이에서 방향하는 미국의 조경술(造景術)에 미국 독자적인 기초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인물중의 하나이다. 토마스 제퍼슨의 베르사이유궁의 기념비적(monumental) 위용에 대한 동경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동감대 위에서 합치되어 프랑스인 랑팡에게 포트맥(Photomacc) 강변에 신수도 워싱턴(Washington)의 도시계획을 의뢰토록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817년~26년 사이 버지니아 대학교정(Virginia University Campus)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브리지만→켄트→브라운→랩튼으로 이어진 영국 자연풍경식은 앤드류 잭슨 다우닝(Andrew Jackson Downing)

의 백악관과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 미국 국립 박물관)의 계획을 통해 미국적인 대중제1주의(public first) 개념의 도입가운데 포용되었으며 넓은 잔디밭과 전정(前庭)(front yard)의 화사한 꾸밈새 등이 바로 시민을 위한 대중정원(public garden)으로서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이은 칼버트 보그스(Calvert Vaux)와 프레드릭 로우 올름스테드(Fredric Law Olmsted)는 1858년 뉴욕의 중앙공원(Central Park)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종래의 사유지(私有地) 조경(유럽에서의 벨사이유 햄턴코트, 보르비 공예, 이태리식 별장 등 왕궁과 귀족들의 정원)에서 떠나 시민을 위한 대중공원(public park), 즉 공공공원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현대조경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대 전환을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현대조경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올름스테드(F. L. Olmsted)는 1822년 당시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당시 인구 123,000명) 교외에서 태어나 서부개척 시대의 후반기와 도시집중시대의 사회적 변천기를 살았는데 그는 측량기사이자 항해사였으며 1847년에는 스탠튼 아일랜드(Stanten Island)에 다 만인의 갈채를 받은 시범농장(Model Farm)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언론가로 출판업자로서도 활약했으며 남북전쟁 당시에는 미국 적십자사의 전신인 미국 위생위원회의 사무관으로 2년간 봉사하기도 한, 실로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었다.

이 시기 1844년 시인이자 신문 편집인인 윌리엄 컬렌 브라이언트(William Cullen Bryant)가 「The New York Evening Post」지에 대중 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열띤 글을 발표하였고 4년 후인 1848년에는 앤드류 잭슨 다우닝도 「The Horticulturist」지에 유럽 대륙 왕후 귀족들의 광대한 사유지가 일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가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공공을 위한 대중 공원의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뉴욕의 시의회(The Board of Alderman)는 공공 공원 건설을 위한 부지 마련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당국에 의하여 공원위원회(公園委員會: The Board of park Commissioners)가 구성되었다. 1858년 4월 1일 공원위원회(B. O. P. C)는 중앙공원(Central park) 건설을 위한 설계경기(Competition)를 실시 34개의 응모 작품중에서 올름스테드와 보그스(F. L. Olmsted + C. Vaux)의 그린스워드 플랜(Greensward plan: 잔디계획)을 영예의 최우수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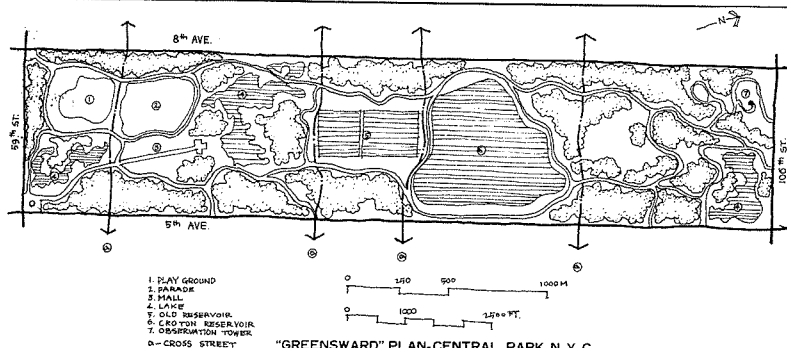
작품으로 뽑았다. 올름스테드는 B. O. P. C로부터 중앙공원(Central park)의 총감독으로 위촉받아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의 유명한 센트랄파크를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344ha의 교외 부지에 이처럼 대규모의 방대한 공원 계획을 시도 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올름스테드는 급격히 증가하는 뉴욕의 인구와 도시 성장의 예견에 대한 완벽한 선견지명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공원위원회(B. O. P. C)의 열광적인 동의를 득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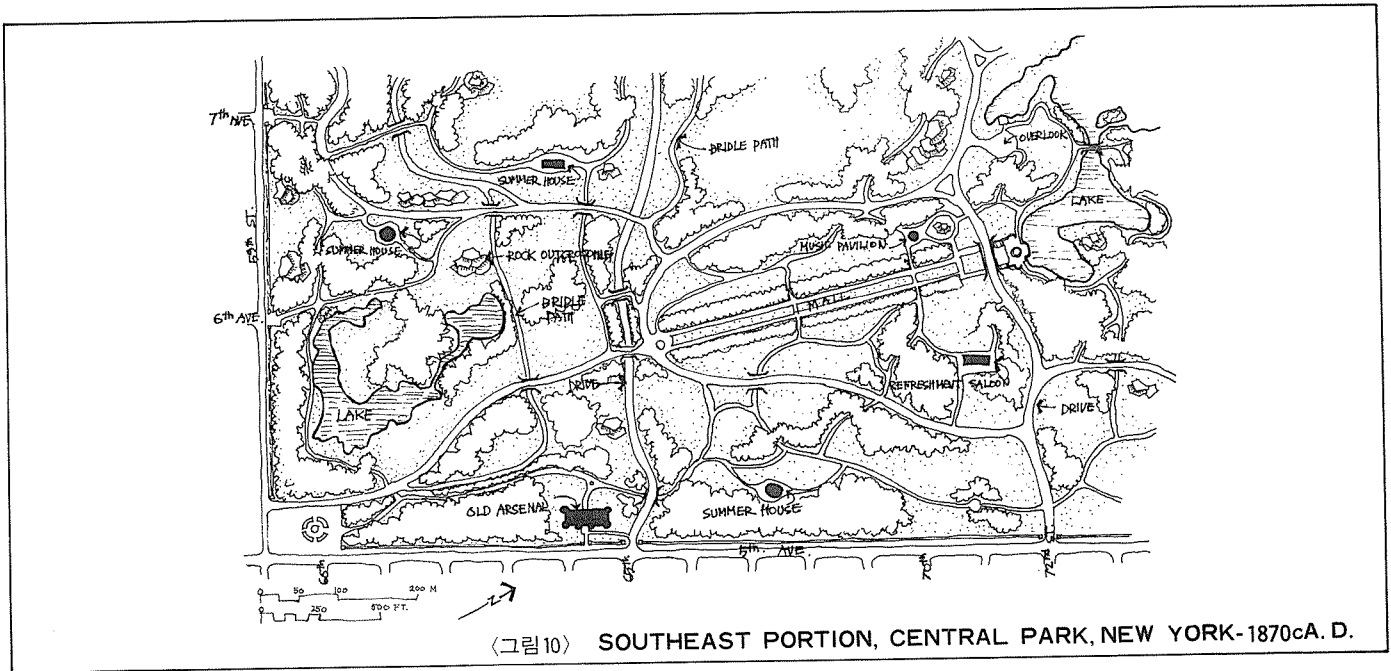
그린스워드 계획(Greensward plan)을 요약하면 그림 9,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부지를 관통해야 하는 횡단도로에 대한 계획을, 규칙적인 간격으로 필요한 교차점마다 공원내 일반 도로 표면보다 낮게(2~3m) 계획함으로써 공원내에서 횡단 도로의 노출이 안되게 하였음.

2. 시각적 효과도 올리고 소음을 완충하는 역할도하는 이중효과의 경계식재를 실시.

3. 전체 부지의 형태는 장방형이나 도시의 엄격한 바둑판 눈금형 양식(grid pattern)으로 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자연적





경관으로서의 길게 내려다 보이는 경치 (vista)와 전망(view)을 강조.

4.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대화하며 쉴 수 있는 가로(avenue)와 산책로(mall)를 구분 시설.
5.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길고 넓은 마차의 운행로(drive course)를 시설.
6. 유쾌한 경험과 건강한 운동을 주는 길고 다양한 승마도로(bridle trail)를 시설.
7. 한가한 산책자들을 위한 기복있는 보도(walking way)를 시설.
8. 시원함과 신선함을 줄 수 있는 평지의 잔디밭(lawn ground)과 도보행진 등 특별행사에 사용될 연병장을 시설. (parade ground)
9. 활동적인 운동을 위한 놀이터(play ground).
10. 비스타(Vista)로서, 보트장으로서, 겨울의 스케이트장으로서 매력적인 호수.
11. 분위가 좋은 환경에서 식물 감상을 할 수 있는 꽃밭(flower garden)과 수목원(arboretum).

이상 요약한 것과 같이 센트럴파크에서 날로 비인간화 되어가는 도시적 인간환경 (밀집된 도시, 가로와 고층건물과 각종 공해)으로 부터 인간의 본성을 회복 시키려는 위대한 사상적 배경을 읽을 수 있으며 종래의 특징인을 위한 전제봉건적 사고의 탈피와 더불어 민주적 복지주의의 전개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그린스워드 플랜(Greensward plan)의 성공은 올름스테드의 명성을 견고히 확립시켰으며, 1869년의 미국 대륙 횡단 철도건설의 완성, 1893년의 시카고

세계 콜럼비아 박람회, 전국적인 통신향 (철도건설에 따른)확장 등의 사회여건 성숙에 힘입어 순식간에 미국 전국 각지 도시에서 대중공원(public park) 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캐나다와 유럽대륙으로 다시 확산되어 전제 봉건시대에 건설되었던 왕궁과 귀족들의 정원이 대중정원(public garden)으로 개방되게 되었고 19세기 중엽에는 영국의 하이드파크(Hyde park)를 비롯하여 켄싱턴 가든(Kensington garden), 그린 파크(Green park), 세인트 제임스 파크 (St. James park), 리젠트 파크(Regent park) 등의 대중공원이 속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샹젤리제(Champs Elysees), 파르크 몽소(Palais Royal parc Monceau), 자르댕 플랑트(Jardin des plantes), 룩셈부르크 파르크(Luxembory parc)가 꾸며졌으며 독일에서도 메테부르크(Megoludurg)라는 소도시에서 최초의 도시공원이 생겼다. 베를린에서는 프리드리히샤인(Friedrichshain)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공원화되었고 왕실 소유의 티르 가르텐(Tier garten)이 역시 시민공원화 되었다. 또한 의사였던 세르베르(Schreber)에 의해 창시되었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라고 불리는 것은 한 단위가 200㎡ 정도인 집단 소정원 지구로 시민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시켜 채소 화훼 과수 등을 기르게 함으로써 여가 및 취미 활동을 즐기게 하였고 그 중심지에 김나지움(Gymnagium)을 설치하여 운동경기 등을 실시하여 국민 건강에도 기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지금도 독일지방을 여행해

보면 어느 도시에 가도 우리 개념으로 보면 주말농장과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런것이 흔히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대중공원(public park)의 사조는 20세기에 이르러 도시계획상 함께 고려해야할 기본개념이 되다시피 되었고 공원이 없는 도시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한걸음 나아가서 1928년 부터는 뉴저지(New Jersey)의 래더번에 클레어런스 스타인(Clarance stein)과 헨리라이트(Henry wright)이 복잡한 도시환경으로 부터 이탈하여 도시 근교의 전원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택 단지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도로와, 주거생활, 보행자 공간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자동차나 기타 각종 공해로 부터 거주민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필요한 근린 주거시설 (住居施設)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여 녹지대의 (Pathasterian Mall)을 중심으로 배치된 이 전원도시는 오늘날까지도 비인간화한 거대도시에 대한 안정된 주거단지 계획의 시범적 전본 (model)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에서의 대중공원(Public park) 사상은 멀게는 태고로 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서양조경 (西洋造景) 역사의 한 결정의 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교통·통신 및 모든 산업과 정보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온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옥외의 거실(정원)인 동시 생활공간(공원과 시가지) 구성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